

## 아득한 옛날 현대무용 이야기

박성혜 · 무용평론가

### 30년 전, 현대무용은 마사 그레이엄이었다!

옛날 옛날에 현대무용이 있었다.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축스럽고 마냥 어색하던 그 옛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격이던 그 옛 시절, 현대무용은 정말 남다른 춤이었다.

한국무용이야 의당 눈에 익숙한 한복이라도 걸쳤지만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짝 끼는 수영복 같은 옷만 입고 여자들이 춤을 춘다는 것만으로 충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내친김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여성의 몸매가 그대로 들어난 것을, 보기에 또 보여주기에도 서로가 민망스러워했던 시절에 그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다리를 쪽 들어 올리고 온 몸을 출렁거리며 무대 위를 종횡무진 뛰어 다녔다. 춤도 좀 요상하다. 에로틱하지도 않은 것이, 그렇다고 운동도 아닌 것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춤들이 좀 심오한 듯하다.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몸을 보는 시선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춤을, 아니 몸을 다시 보고 생각하게 된다.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자 주체로서 말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춤은 예술이라는 사실에 말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딱 30년 걸렸다. 하지만 그 30년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정말 오랜 세월이었다.

아마도 그 3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변해야 한다는 열망이 그 만큼 컸기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들에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 주면 '살마 그랬을 까' 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30년이 아니라 300년의 간극이 느껴지기에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 그때 정말 그랬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한된 예술적 행위와 고정관념들과의 싸움, 그리고 최대한의 타협점과 합의에 의해 진행된 공연물들이었기에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촌스럽고 유치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고 덕분에 금지곡과 금서들이 난무했다. 경제적으로는 왜 그리도 가난했는지 사람을 공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무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덕분에 예술적 운신의 폭은 너무나도 좁았다. 무엇을 새롭게 창작하고자 시도해 보고 싶었지만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었다.

정보의 부재는 제한된 예술 표현을 낳았다. 현대무용이라 하면 마사 그레이엄이 최고요, 유일한 것으로 알았다. 덕분에 현대무용은 곧 마사 그레이엄이었다. 그래서 30년 전 당시 공연되어진 모든 현대무용에서는 마사 그레이엄 테크닉인 이완과 수축이 꼭 따랐다. 연습실에서 무수히 뛰던 립과 점프도 꼭 등장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코미디이지만 그때는 진지했다.

하지만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이었다. 그들은 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작금의 춤에 대해

고민했고 궁금해 했다. 덕분에 현대무용은 스스로 진화한다. 그것도 무척이나 빠르게 말이다. 한해 한해가 달랐고 매 작품마다 변했다. 그런 빠른 속도 덕분에 30년 전을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아득한 옛 시절로 만들어 버렸다.

### 한국 현대무용의 진화,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기념공연

이러한 30년의 장구한 역사를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이다. 한국 현대무용의 역사를 스스로 쓰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리는 단체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을 충무아트홀에서 가졌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되새겨 보는 1부와 미래의 꿈나무들인 계원·덕원예고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2부를 장식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의 초대 대표와 현대대표인 육완순과 이윤경, 그리고 창단 단원 중 한 명이었던 박명숙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영상이라는 형식으로 소개된 1부는 한국 현대무용사를 무대로 표현한 역사(略史)였다. 단순한 개인의 무용단 연보에서 그치지 않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무용이 걸어온 발자취요, 변화된 모습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3부의 세 작품 모두 소품이었지만 저마다 잔잔한 파동을 일으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윤경의 「홀로 아리랑Ⅵ」은 피아노와 기타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 진행된 춤이었다. 이윤경의 간단한 독무였지만 형식과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았다. 안무가 이윤경은 자신의 몸과 특성을 최대한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무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긴 무용수라고는 믿기 어려운 생동감은 '춤추는 무용수의 나이'는 세상이 따지는 세월과는 무관함을 깨닫게 했다.

박명숙의 「2006 초혼」 역시 김영미라는 무용수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춤이 예술이라는 인식 전환에 걸린 시간은 딱 30년이다. 그 30년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정말 오랜 세월이었다. 정보의 부재는 제한된 예술 표현을 낳았다. 현대무용이라 하면 마사 그레이엄이 최고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이었다. 그들은 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작품의 춤에 대해 고민했고 궁금해 했다. 덕분에 현대무용은 스스로 진화한다. 그것도 무척이나 빠르게 말이다. 한해 한해가 달랐고 매 작품마다 변했다. 그런 빠른 속도 덕분에 30년 전을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아득한 옛 시절로 만들어 버렸다.

의 솔로 작품이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김영동의 음악을 사용해 나지막한 혼곳을 펼쳤다. 향로와 춤추고 있는 무용수 자신이 전부인 깔끔한 무대였지만 무용수 김영미는 확실히 돋보였다. 그녀의 춤은 그리 요란하지도, 또 현란한 테크닉도 없었지만 깊은 호흡으로 공간과 시선을 예리하게 파악해 무대 전체의 긴장감을 스스로 조율하고 있었다. 앞서 춤춘 이윤경과는 또 달리 춤 잘 추는 무용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었다.

마지막 작품인 육완순의 안무작 「실크로드Ⅲ」는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답게 남녀 무용수 여러 명이 등장하는 군무였다. 이 작품 역시 황병기의 음악을 사용했다. 앞선 2개의 작품이 모두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와 음악으로 한국적인 특성이 농후한 현대무용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세 작품 모두 한국적인 현대무용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다룬 듯하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일치이던 간에 현대무용 30년을 조망하는 무대에 선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사 그레이엄 테

크닉이 유일이었던 그 옛날(예술 형식적으로 사고 해서 정말로 아득했던)에서 벗어나 지금은 우리만의 현대무용을 구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독창성과 개성 발휘, 현대적 사고와 감각, 새로운 시도는 현대무용의 목적이자 그 본연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세 작품이 우리의 현대무용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 외국에서 유입된 현대무용이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해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공연이었다. 더욱더 대견한 것은 그 옛날 그 촌스러운 춤들을 만들고 추던 사람들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변화해 당시와는 전혀 다른 춤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역시 현대무용을 보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무용을 안보려야 안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한국 현대무용의 변화, 발전, 진화의 속도에 긍정적 기대를 걸며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게 한다.

#### 안무가의 분투에 격려를!-장선희발레단의 「사랑에 관한 일곱 개의 변주」

매년 왕성한 창작발레를 선보이고 있는 장선희의 신작 「사랑에 관한 일곱 개의 변주」를 보았다. 안무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기를, 이 작품은 사랑에 관한 다양한 방식을 나름대로 풀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주관적인 해석으로 풀어낸 7개의 사랑에 관한 단상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낭만적인 음악으로 포장해 놓았다. 고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곡부터 시작하더니 오페라 아리아 「사랑의 묘약」과 영화 「러브 스토리」의 음악으로 이어지더니 가요 「가시나무」에 이른다.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춤들로 각각의 사랑에 옷을 입힌다.

첫 장면 에필로그는 다분히 도시적이고 현대적이다. 출연하는 무용수들이 도시인들의 복장을 하고 전투적으로 무대를 메운다. 그들의 횡령은 모리스 베자르의 「콩쿠르」란 작품을 연상하게 했지만 이쉽게도 짧은 에필로그에 그치고 만다.

이후 전개되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모습들이 남녀 2인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독무와 군무로 진행된다.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들이 때때로 감지되는 오페라 「카르멘」의 음악은 이 작품이 잃어가고 있던 활기를 되찾아 준다. 불꽃같은 정열의 여인으로 분한 임혜경의 매력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매혹적이고 육감적인 음악과 안무였지만 순진한 군무진들의 무용수들이 이를 충분히 따라 가지를 못해 아쉬웠다.

특이하게도 불어로 부른 오페라 「탄호이저」의 변주 음악이 흐르는 동시에 춤이 진행된 장면은 이 작품의 대미이자 하이라이트였다. 순간 톨랑 뺨뺨이 연상되는 화려함이었을까. 하지만 이 역시 안무가의 의욕만 보였다. 동작 구성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용수들은 어색했다. 안무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인지, 무용수들의 표현의 한계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부자연스럽고 어색했다. 해당 부분을 고풍적인 무용수들의 춤으로 제대로 표현했다면 너무나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았다.

안무가는 처음과 마지막에 큰 기대를 건듯 했지만 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뒤 장면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아마도 한국 창작발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보니 이러한 감정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현대발레를 끊임없이 안무하고 있는 안무가의 분투를 감안해 보면 격려의 박수를 당연히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